

‘비즈니스 전공영어’ 수업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시사점

김부자

서울기독교대학교 국제경영정보학과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Class Activities in Business Major English Class and Its Implication for Good Business English Reading

Bu-Ja Kim

Dept. of Global Business & Inform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요 약 국내외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좋은 수업의 공통적 특징 중의 하나는 다양한 수업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도입하여 ‘비즈니스 전공영어’ 수업을 좋은 수업으로 만들기 위해 교수설명, 그룹활동 및 발표, 단어퀴즈, reading comprehension, 숙제 및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수업활동으로 활용되었다. 2015년과 2016년에 ‘비즈니스 전공영어’ 수업을 수강한 3학년 39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활동은 교수설명이었다. 둘째, 텍스트 내용 이해와 영어구문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수업활동은 교수설명이었다. 셋째, 그룹 활동 및 발표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 않았으며, 텍스트 내용 이해와 영어구문 이해에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수업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영어문장 구조의 정확한 파악에 미숙한 조사대상자 학생들은 텍스트 내용의 확실한 이해를 위해 영어문장 구조에 대한 교수의 명확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영어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선호하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인식하는 수업활동은 교과목의 특성과 학생들의 영어능숙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주제어 : 비즈니스영어, 수업활동, 선호도, 도움정도, 텍스트 내용 이해, 영어구문 이해

Abstract According to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one of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good teaching is a variety of class activities. To make 'Business Major English' a good class, the researcher used a variety of class activities such as professor explanation, group activities & presentation, vocabulary quizzes, reading comprehension, homework and test feedback. The participants were 39 junior students who took 'Business Major English' in 2015 and 2016. Data on student perception were gathered from questionnaires. The analysis of the data showed, first, that the class activity the students preferred the most was professor explanation. Second, the class activity which was the most helpful in understanding text content and English sentence structures was professor explanation. Third, there were not many students preferring group activities & presentation and the students found group activities & presentation the least helpful in understanding text content and English sentence structures. Given the results, this study implies that for English class activities, students' preferences and the help they perceive have a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a class and students' English proficiency.

Key Words : Business English, Class Activities, Preference, Help, Text Content, English Sentence Structures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서울기독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Received 3 January 2017, Revised 1 Febr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Bu-Ja Kim (Dept. of Global Business & Inform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Email: kbj9512@sc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수업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본격적으로 나타났지만 미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대학수업에 대한 연구가 꽤 이루어졌는데, 미국에서의 대학수업 관련 선행연구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Greive(1998)[1]는 14개의 대학수업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제시된 전략들 중에는 ‘학습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할 것’, ‘다양한 수업 활동을 계획 할 것’, ‘학생 참여의 적극적 유도’가 포함되어 있다. Greive(1998)[1]가 제시한 대학수업 전략들은 학생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한 전략들로 명강의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접근으로 나아가게 했다. Dunne와 Brooks(2004)[2]는 명강의식 접근은 특정 상황에서만 효과적이고 많은 경우 지루하고 머리에 남는 것이 별로 없으므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수업전략이며 반 학습자 중심의 학습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Cameron(1999)[3]은 대학 강의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 학습 방법들을 제시하였는데, 문제/피드백 박스, 활동 기록, 학습자의 참여, 통제된 토론, 퀴즈 게임, 인터넷 이용, 강의와 토의 등이 포함되어져 있다. Mckeachie(2002)[4], Stein와 Hurd(2000)[5], Svinicki(2004)[6]에서도 학생 중심의 적극적 학습이나 협동학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수업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지만, 대학평가에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요구하면서 최근에 들어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 대학수업에 대한 초기의 대표적인 연구는 양병창과 서창원(1994)[7]의 연구로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명백히 설명하는 교수의 강의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이 주로 맞추어진다. 즉 명강의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적극적 학습에 더 큰 비중이 주어지는 것이다. 박민정(2008)[8]에 의하면, 학생들이 좋은 대학수업으로 인식하는 수업 중의 하나는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참여와 소통이 있는 수업이다. 김태완 외 4인(2006)[9] 연구에서는 토론 등 다양한 교수매체가 활용되는 수업과 학습자를 수업에 참여시키는 전략이 있는 수업 등을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정(2012)[10]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내용을 이해시키

며 수업 중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학생들이 좋은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용숙(2011)[11]은 성공적 대학수업의 특징들을 제시했는데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수업방법의 다양성을 명시하였다. 수업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하나의 주제를 여러 방식으로 반복하여 다룸으로써 수업내용 기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대학수업의 또 하나 중요 특징은 상호작용과 소통으로서 토론과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과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을 학생들은 이상적인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2015)[12]는 비즈니스 영어수업에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여 수업활동의 하나인 그룹활동에 대한 유용성을 탐색한 바 있다. 연구결과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그룹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었고,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와 김준희(2014)[13]는 융복합형 교육시스템을 모색하면서 교육방식의 융합으로 강의 형태의 교육방식과 더불어 교수-학생 양방향 교육 및 학생 주도의 팀 단위 학습 등 다양한 교육방식의 수업활동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 주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연구는 백지원(2009)[14]인데, 이 연구에서는 대학 영어 읽기 수업에서의 활동 효과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참여자들은 교수 강의 의존도가 높았으며 자율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그룹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개별활동에 대한 선호도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좋은 대학수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수업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에 상호작용과 소통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여 스스로 적극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대학수업이 좋은 수업의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이 모든 수업에 대해 일괄적인 좋은 수업의 개념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좋은 수업에 대해 인식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특수목적영어의 하나인 비즈니스영어는 비즈니스 내용과 영어를 통합하여 교수하는 것으로, 비즈니스영어 읽기 수업에서는 비즈니스 관련 영어텍스트 이해와 텍스

트 이해를 위한 영어구조 학습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즈니스영어 읽기 수업을 좋은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학생간의 상호작용과 학생 스스로의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학습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업활동을 수업에 적용시킬 때 학생들은 각각의 수업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각각의 수업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와 도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밝힘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좋은 비즈니스영어 읽기 수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국제경영정보학과 전공필수인 '비즈니스 전공영어' 수업을 수강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되었다. 2015학년도 수강자 20명과 2016학년도 수강자 19명이 설문대상자로 총 참여자 수는 39명이었으며 남녀의 비율은 22대 17로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 비율보다 높았다.

2.2 연구대상 수업

'비즈니스 전공영어'는 일주일에 3시간씩 16주에 걸쳐 수업이 이루어졌고 교재는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사의 *English for Business Studies*가 사용되었다. 다른 많은 대학들의 경영학과에서는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 대학 국제경영정보학과 학생들의 영어능력은 평균적으로 중하위에 속하기 때문에 영어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전공수업 시간에 영어로 된 교재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비즈니스 전공영어' 시간을 통해 경영과 경제에 관련된 비즈니스 어휘 및 주요 개념의 영어 어휘 및 표현을 습득하여 비즈니스 주제에 대한 영어텍스트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 수업의 주된 목표이다. 이와 더불어 영문 텍스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영어구조 파악 능력을 높이는 것도 이 수업의 목표이다. 중간고사 전후로 각각 4개의 텍스트에 대한 읽기 수업이 진행되었다.

좋은 대학수업의 공통된 특징들 중 하나로 지적된 것

은 다양한 수업방법이었기 때문에 교수설명 위주의 강의, 개인활동, 협력활동이 도입되었다. 즉 강의 형태의 교수설명과 더불어 그룹활동 및 발표, 단어퀴즈, reading comprehension, 숙제 및 시험에 대한 피드백이 수업활동으로 활용되었다. 학생들은 수업 첫 시간에 그룹을 구성하고 그룹별로 텍스트 하나를 배정받아 준비해서 한 학기에 한 번 발표를 하였다. 각 그룹은 배정된 텍스트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텍스트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 후 학습성고를 정리한 핸드아웃과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수업시간에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각 그룹은 그룹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모든 그룹은 거의 동일한 그룹활동을 하였다. 각 개인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텍스트 해석과 내용 이해를 그룹모임에서 발표하여 구성원들과 함께 학습한 것을 공유하였으며 자기주도 학습 과정 중 해석 및 이해가 잘 안된 부분을 구성원들에게 이야기하여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하였다. 즉 개별적인 자기주도학습 후에 그룹 차원의 협력학습이 이루어졌다. 수업시간에 그룹 발표가 있는 후 교수가 주요 영어구문 및 어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해석을 한 후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다. 설명을 하면서 주요 내용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 답을 하도록 하였다. 각 텍스트가 끝날 때마다 텍스트 내용의 이해를 확인하는 reading comprehension이 개인 숙제로 주어졌고 그 다음 수업시간에 텍스트에 나온 chunk 형식의 주요 어휘에 대한 퀴즈가 실시되었다. reading comprehension 숙제는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피드백을 주었으며, 중간고사 후에도 개별적으로 시험지 채점을 확인하게 한 후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었다. 수업의 모든 과정은 우리말로 이루어졌다.

2.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비즈니스 전공영어' 수업에서 활용된 수업활동에 대한 선호도와 도움에 대해 묻는 다중 선택형과 5단계 척도 문항으로 모두 14개 문항이었다. 2015년과 2016년 2학기 마지막 수업시간에 담당교수인 연구자가 참석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학생들이 설문문항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설명하였다. 설문결과는 다중 선택형과 5단계 척도 문항의 응답 자료를 빈도

분석하였다.

3. 조사결과 및 분석

3.1 수업활동의 선호도

<Table 1>은 교수 강의만 있는 수업과 다양한 수업활동이 있는 수업 중 개인적인 선호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인데 교수강의만 있는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20명(51.3%), 다양한 수업활동이 있는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19명(47.4%)로 교수강의만 있는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1명 더 많았다.

<Table 1> Classes the Participants Prefer

Class	Frequency	%
classes with only the professor's lectures	20	51.3
classes with a variety of activities	19	48.7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수업방법이 좋은 대학수업의 특징으로 제시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다양한 수업활동이 있는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절대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조사 이전의 연구자 추측을 완전히 빗나간 결과였다.

<Table 2>는 5단계 척도로 이루어진 수업활동의 선호 정도에 대한 결과이다.

<Table 2> Preference of Class Activities

Activity	strongly prefer	prefer	neither prefer nor not prefer	not prefer	strongly not prefer
professor explanation	23 (59%)	15 (38.4%)	1 (2.6%)	0	0
group activities & presentation	2 (5.1%)	15 (38.5%)	12 (30.8%)	10 (25.6%)	0
vocabulary quizzes	6 (15.4%)	14 (35.9%)	17 (43.6%)	2 (5.1%)	0
reading comprehension	6 (15.4%)	14 (35.9%)	17 (43.6%)	2 (5.1%)	0
homework and test feedback	12 (30.8%)	12 (30.8%)	15 (38.4%)	0	0

개개의 수업활동에 대해 5단계 척도로 선호도를 표시하게 한 결과 <Table 2>에서 보듯이 교수설명과 과제

및 시험 후 피드백 수업활동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답변(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을 한 학생들이 전혀 없었다. 특히 교수설명은 1명을 제외한 38명(97.4%) 모두 선호도에 대해 확실한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하여 다른 수업활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것은 대부분 학생들이 교수의 설명에 의존하는 학습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수업활동들의 경우, 그룹활동 및 발표는 17명(43.6%), 단어퀴즈는 20명(51.3%), reading comprehension은 20명(51.3%), 피드백은 24명(61.6%)이 확실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즉 교수설명, 피드백, 단어퀴즈와 reading comprehension, 그룹활동 및 발표 순으로 선호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할 점은 대학교육에서 협동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좋은 수업의 특징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룹활동 및 발표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수업활동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이 된 학생들은 협동학습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3.2 텍스트 내용 이해에 대한 수업활동의 도움

<Table 3>은 텍스트 내용 이해를 위한 도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이다.

<Table 3> Help in Understanding Text Content

Activity	very helpful	helpful	neither helpful nor not helpful	not helpful	not at all helpful
professor explanation	27 (69.2%)	10 (25.7%)	2 (5.1%)	0	0
presentation after group activities	2 (5.1%)	10 (25.7%)	17 (43.6%)	8 (20.5%)	2 (5.1%)
vocabulary quizzes	6 (15.4%)	12 (30.8%)	19 (48.7%)	2 (5.1%)	0
reading comprehension	15 (38.4%)	12 (30.8%)	12 (30.8%)	0	0
homework and test feedback	14 (35.9%)	17 (43.6%)	8 (20.5%)	0	0

텍스트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확실한 긍정적 답변(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한 학생들은 교수설명(37명, 94.9%), 과제 및 시험 후 피드백(31명, 79.5%), reading

comprehension(27명, 69.2%), 단어퀴즈(18명, 46.2%), 그룹활동 및 발표(12명, 30.8%) 순으로 학생 수가 많았다. 교수설명은 조사대상자 중 2명을 제외한 94.9%의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그룹활동 및 발표는 도움이 된다고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이 30.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실한 부정적 답변(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을 한 학생들이 25.6%나 되어 텍스트 이해에 그룹활동 및 발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무시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활동 및 발표를 제외한 다른 수업활동의 경우 단어퀴즈의 2명을 제외하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학생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룹활동 및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심각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3.3 영어구문 이해 및 영어학습에 대한 수업 활동의 도움

영어구문 이해 및 영어학습에 대한 도움 정도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Table 4> Help in English Studying

Activity	very helpful	helpful	neither helpful nor not helpful	not helpful	not at all helpful
professor explanation	31 (79.5%)	8 (20.5%)	0	0	0
group activities & presentation	2 (5.1%)	10 (25.6%)	15 (38.5%)	12 (30.8%)	0
vocabulary quizzes	10 (25.6%)	6 (15.4%)	19 (48.7%)	4 (10.3%)	0
reading comprehension	11 (28.2%)	14 (35.9%)	14 (35.9%)	0	0
homework and test feedback	10 (25.6%)	8 (20.5%)	19 (48.8%)	0	2 (5.1%)

교수설명의 경우 100% 모든 학생들이 영어구문 이해 및 영어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실한 긍정적 답변(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모든 학생들은 복잡한 영어구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수설명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도움이 된다고 확실한 긍정적 답변을 한 수업활동의 순위는 교수설명(39명, 100%), reading comprehension(25명,

64.1%), 과제 및 시험 후 피드백(18명, 46.1%), 단어퀴즈(16명, 41%), 그룹활동 및 발표(12명, 30.7%) 순이었다. 그룹활동을 통해 영문텍스트 해석과 내용 이해를 한 후 발표를 하였지만, 그룹활동 및 발표가 영어구문 이해 및 영어학습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가장 적었다. 특히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학생들은 30.8%로 조사대상자들 중 상당 비중의 학생들이 그룹활동 및 발표가 영어구문 이해 및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수업활동에서 부정적 답변(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을 한 학생들의 비중과 비교하면 그룹활동 및 발표에서 부정적 답변을 한 학생들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였다.

3.4 교수설명의 필요성

앞의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텍스트 내용 이해와 영어구문 이해 및 영어학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수설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설명이 꼭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Table 5>에서 보듯이 모든 학생들이 '예'라는 답변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텍스트 내용 이해와 영어구문 이해를 위해 교수강의를 통한 설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able 5> The Necessity of Professor Explanation

Necessity	Frequency	%
needed	39	100
not needed	0	0

<Table 6>은 교수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이다.

<Table 6> The Reason Why Professor Explanation is Needed

Reason	Frequency	%
for understanding text content	20	51.3
for translating English sentences correctly	17	43.6
for grasping the meaning of words in sentences	2	5.1

텍스트 내용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51.3%로 가장 많았고, 영어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43.6%로 그 뒤를 이었다. 즉 94.9%에 해당되는 대부분 학생들은 영어문장의 정확한 해석과 텍스트 내용 이해를 위해 교수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룹별로 텍스트 하나를 배정받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또 협력적으로 학습한 후 수업시간에 발표하는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설명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나 있다.

<Table 7> The Reason Why Professor Explanation is Needed in Addition to Student Presentations

Reason	Frequency	%
Student presentations are not clear enough to understand text content.	19	48.7
Students do not translate English sentences correctly.	6	15.4
due to not attending to student presentations	2	5.1
to verify student presentations	4	10.3
to raise learning effect	8	20.5

절반에 가까운 48.7% 학생들은 발표를 통한 학생설명만으로는 텍스트 내용 이해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들은 영어구문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정확한 영어문장 해석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15.4%가 되었다. 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이 발표한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교수설명을 통해 확인하려는 학생들도 10.3% 있었다. 즉 조사대상자의 74.4%에 해당되는 큰 비중의 학생들은 학생 발표만으로는 영어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텍스트 내용 이해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20.5% 학생들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발표와 더불어 교수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5.1%에 해당되는 2명 학생은 학생발표 때 집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텍스트 내용 이해와 영어문장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발표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5 그룹활동

<Table 8>은 그룹활동과 관련된 문항들의 결과이다.

<Table 8> Group Activities

Activity	strongly agree	agree	don't know	disagree	strongly disagree
① actively expressed my opinion.	13 (33.3%)	12 (30.8%)	8 (20.5%)	6 (15.4%)	0
② I listened attentively to other group members' opinions.	10 (25.6%)	17 (43.6%)	6 (15.4%)	6 (15.4%)	0
③ When there was a difference of opinion between group members, this was resolved through discussion and coordination.	2 (5.1%)	23 (59.0%)	10 (25.6%)	4 (10.3%)	0
④ I controlled my feelings when there were conflicts within the group.	6 (15.4%)	16 (41.0%)	15 (38.5%)	2 (5.1%)	0
⑤ I didn't give an unpleasant feeling to a group member who didn't take an active part in group activities.	8 (20.5%)	19 (48.7%)	6 (15.4%)	6 (15.4%)	0
⑥ I obeyed the rules decided by the group.	8 (20.5%)	19 (48.7%)	8 (20.5%)	4 (10.3%)	0
⑦ I gave encouragement to passive group members.	4 (10.3%)	20 (51.3%)	15 (38.4%)	0	0
⑧ I helped a group member who had difficulty in carrying out an individual task.	4 (10.3%)	21 (53.8%)	10 (25.6%)	4 (10.3%)	0
⑨ I played a leading part in carrying out the group assignment by expressing my opinion actively.	10 (25.6%)	12 (30.8%)	13 (33.3%)	4 (10.3%)	0
⑩ I discussed with my group members and the decision was made through compromise.	10 (25.6%)	17 (43.6%)	8 (20.5%)	4 (10.3%)	0

그룹활동에 관한 문항들 중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들은 ①부터 ③까지 문항들이다. 세 문항 모두 확실한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그렇다)을 한 학생들은 60%가 넘었지만 70%에는 미치지 못했다. 즉 다수의 학생들은 그룹활동 중 구성원간에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고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활동도 적극적으로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었다. 30% 이상의 학생들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고, 적극적인 의견제진과 경청에 대해서는 15.4%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의견조정에 대해서도 10.3% 학생들은 부정적인 답변을 하여 그룹활동 중 이루어진 의사소통 활동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학생들도 무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④와 ⑤는 자기감정조절에 대한 문항들이다. 56.4% 학생들은 불화가 생겨도 감정조절을 잘 하였다고 인식하고 있고, 69.2% 학생들은 그룹활동에 기여도가 떨어지는 구성원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다수의 학생들은 그룹활동에서 정서적 자기조절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불화시 감정조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43.6%이고, 그룹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구성원을 감정적으로 대했다고 확실히 답한 학생들도 15.4%가 되어 그룹활동 중 자기감정조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확실히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었다.

⑥부터 ⑩까지는 대인관계에 관련된 문항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룹활동에서 시간, 참석, 분담과제 수행 등 다른 구성원들과 정한 약속을 지키고, 그룹활동에 소극적인 구성원을 격려하고, 분담된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을 도와주면서, 의사결정을 위해 다른 구성원과 토론 및 타협을 통해 합의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학생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룹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과업 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60%에 못 미치는 56.4% 학생들이 확실한 긍정적 답변을 하여 자신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른 활동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 즉 다수의 학생들은 그룹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유대하고 협력하며 중재하는 활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룹활동에 소극적인 구성원을 격려하는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활동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하는 학생들이 약10%가 되고,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질문한 모든 활동들에 대해 확실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 30% 이상이 되어 그룹활동 중 대인관계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볼 수 없었다. 특히 자신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는 43.6% 학생이 확실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

지 않아 구성원들이 자신이 분명히 리드했다고 인식하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해서 보면, 그룹활동에서 수행한 자신의 활동의 활발성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그룹활동의 장점과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Table 9>는 그룹활동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Table 9> The Strengths of Group Activities

Strength	Frequency	%
motivating students to study self-directly	21	53.8
learning responsibility	25	64.1
feeling a sense of accomplishment	16	41
providing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with other students	12	30.8
giving students interest in their learning	4	10.3

그룹활동의 가장 큰 장점으로 두 개를 고르도록 중복선택이 가능하게 한 결과, 개인의 노력이 집단의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64.1%였다. 즉 가장 많은 학생들이 그룹활동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에 대한 학습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룹활동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발적 학습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으로 53.8% 학생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41% 학생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집단에 공헌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장점으로 인식하였고, 30.8% 학생들은 그룹활동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10>은 그룹활동의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Table 10> The Weaknesses of Group Activities

Weakness	Frequency	%
group members who play little role in group activities	8	20.5
the absence of a group member who can play a leading part	23	59
professor's not participating in group activities	14	35.9
confrontation of opinions	12	30.8
group members who don't obey the rules decided by the group	21	53.8

그룹활동의 가장 큰 단점도 두 개를 고르도록 중복선택이 가능하게 한 결과, 그룹 구성이 자유로움에 따라 일부 그룹의 경우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 그룹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구성원이 있어 그룹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으로 53.8% 학생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약36% 학생들은 그룹활동에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서 효율적인 그룹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약31% 학생들은 그룹활동을 하면서 구성원간에 의견대립과 충돌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단점으로 생각하였다. 약20% 학생은 그룹활동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구성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그룹활동 점수가 부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6 단어퀴즈의 도움

각 텍스트가 끝나고 그 다음 수업시간에 텍스트에 나온 chunk 형식의 주요 어휘에 대한 퀴즈가 실시되었는데, 단어퀴즈가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 The Usefulness of Vocabulary Quizzes

Help	Frequency	%
understanding text content	3	7.7
memorizing vocabulary words	28	71.8
grasping the meaning of business English vocabulary words	6	15.4
somewhat not helpful	2	5.1

71.8%에 해당되는 다수의 학생들은 단어퀴즈가 모르는 단어 암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15.4% 학생들은 비즈니스 영어어휘의 정확한 뜻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3.7 reading comprehension의 도움

각 텍스트가 끝난 후 텍스트 내용을 바탕으로 한 reading comprehension의 도움과 관련된 결과는 <Table 12>에 나타나 있다.

<Table 12> The Usefulness of Reading Comprehension

Help	Frequency	%
improving understanding of text content	27	69.2
correct translation of English sentences	6	15.4
grasping the meaning of a word in a sentence	6	15.4
somewhat not helpful	0	0

69.2%에 해당되는 다수 학생들은 텍스트 내용 복습을 통해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reading comprehension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어 문장의 정확한 해석과 문장에서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데 reading comprehension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각각 15.4%였다.

3.8 발표의 도움

그룹활동 후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는 것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결과는 <Table 13>에서 볼 수 있다.

<Table 13> The Usefulness of Presentation

Help	Frequency	%
self-directed preparation	5	12.8
improving content understanding of a text by preparing for presentation	7	17.9
presentation content remaining in memory	14	36
self-directed English study	5	12.8
opportunities for speaking in front of an audience	8	20.5
somewhat not helpful	0	0

그룹활동 후 발표의 경우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한 항목은 없었지만, 발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것을 가장 큰 도움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36%로 가장 비중이 컸다. 발표를 통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기회를 늘리게 된다는 도움을 인식한 학생들이 20.5%로 그 다음 순위였고, 발표한 텍스트의 경우 내용 이해도를 높여주는 도움을 인식한 학생들은 17.9%로 그 뒤를 이었다. 자율적 연습 기회를 가진다는 것과 발표를 위해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영어구문 및 영어어휘 학습을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는 도움을 인식한 학생들은 각각 12.8%였다. 수업시간의 발표를 위해 그룹활동을 통해 텍스트 내용 이해 및 영어 학습을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데, 내용 이해 및 영어 학습에 대한 도움을 인식한 학생들은 각각 17.9%와 12.8%로 비중이 크지 않았다.

3.9 과제 및 시험에 대한 피드백의 도움

과제 및 시험 후에 주어지는 피드백의 도움에 대한 결과는 <Table 14>에 나타나 있다.

<Table 14> The Usefulness of Feedback

Help	Frequency	%
understanding content which was not understood	14	35.9
translating English sentences which were not translated correctly	14	35.9
determining the meaning of unknown words	4	10.2
opportunities for review	6	15.4
somewhat not helpful	1	2.6

과제 및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이해하지 못했던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정확한 해석이 어려웠던 영어문장을 해석 할 수 있게 되는 도움을 받게 된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각각 35.9%였다. 소수의 학생들이지만 복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잘 알지 못했던 영어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게 되는 도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 학생들도 있었다.

4. 조사결과의 시사점

‘비즈니스 전공영어’ 수업에서 사용된 수업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교수설명을 가장 선호하며, 텍스트 내용 이해와 영어구문 이해를 위해 교수강의를 통한 설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 모든 학생들은 수업에서 교수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수업활동이 있는 수업보다 교수강의만 있는 수업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었다. 즉 조사대상자 학생들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생 중심의 활동보다는 교수가 주도하는 강의를 선호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수설명을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도움이 큰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전공영어’라는 교과목의 성격과 조사대상자가 된 학생들의 영어능숙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비즈니스 전공영어’ 교과목의 목적은 경영학 전공자들이 경영 및 경제 관련 영어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즉 비즈니스 내용과 영어를 통합하여 교수하는 것으로, 텍스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외국어 읽기에서 읽기능력은 언어능숙도와 결정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Lee와 Sachallert(1977)[15]는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 그 언어에서 일정 수준 능숙도에 도달해야 외국어로 쓰여진 글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휘와 문법적 구조의 지식이 언어능숙도의 주요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Song(2001)[16]은 문법적 능력이 외국어 읽기 능력과 가장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여러 연구들은 외국어 읽기 능력은 문법적 구조에 대한 지식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Barnett(1986)[17]은 적절한 구문적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어휘적 능숙도도 읽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Pierce(1973)[18]도 읽기에서 어휘가 중요하지만 문장구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Rivers(1981)[19]도 외국어 읽기에서는 여러 구문적 실마리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어구문에 대한 지식이 영어 읽기 능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조사대상자가 된 학생들이 영어구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학생 39명 모두에게 실시한 모의 토익시험에서 600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약44%에 해당되는 17명이고 그 중 700점대 학생들은 약15%인 6명밖에 되지 않았다. 즉 절반이 넘는 약56% 학생들은 토익 600점도 취득하지 못했고, 약 28% 학생들은 토익 600점대로 조사대상 학생들 대다수는 영어능숙도가 낮은 학생들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영어텍스트에서 복잡한 문장구조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조사대상자 학생들은 영어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며 정확한 해석을 해주면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따르는 교수설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문장 구조의 정확한 파악에 미숙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텍스트 내용 이해를 위해 문장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llis(1993)[20], Fotos와 Ellis(1991)[21], Robinson(1997)[22], Rosa와 O’Neil(2000)[23] 등은 명시적 설명이 습득하기 어려운 구조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

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확한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문장구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설명을 하여 구조 파악과 이에 따른 내용 이해가 명확하도록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교수의 일방적 설명이 되지 않도록 설명과 질문을 혼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진행된 수업에서는 영어구문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학생들에게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져 답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수설명에 집중하게 하고 학생들의 내용 이해를 확인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공지능의 지능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변화에서는 인본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교육은 감성적인 인성교육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체득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음에 따라 타인과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 수 있도록 하는 협력적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역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협력 학습에 관심을 갖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이루어진 ‘비즈니스 전공영어’ 수업에서도 그룹활동을 통해 협력학습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룹활동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자기감정조절,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춰 타인과의 협력적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활발성을 조사하였는데 그룹활동에서 수행한 자신의 활동의 활발성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호도나 도움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룹활동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과 협력하여 소통하고 학습하면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룹활동은 더욱 더 많이 활용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룹활동의 선호도 및 도움 정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룹활동의 단점에 대해 다중응답을 하게 한 결과 그룹구성이 자유로움에 따라 일부 그룹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 그룹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시간·모임 참석·분담과제 수행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구성원이 있어 그룹

활동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영어구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텍스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 그룹에 영어능숙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이 있어 과제 수행을 이끌어야 그룹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룹구성을 학생들의 자의의사에 맡기지 말고 학생들의 영어능숙도 수준에 따라 능숙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이 골고루 배치되도록 그룹구성에 교수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학생들의 성격도 그룹활동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생들의 특성과 영어능숙도 수준을 잘 파악하여 그룹구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룹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지만 시간·모임 참석·분담과제 수행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룹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교수의 중재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룹활동이 텍스트 내용 이해와 영어구문 이해 및 영어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텍스트 내용 이해와 영어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학생발표만으로 부족하고 교수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결과는 그룹활동에 교수가 멘토 또는 도움자로서 참여해야 할 필요성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수가 그룹활동에 최소 한 번 이상 참여하여 그룹활동을 하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격려하고 협력학습을 통해서도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문장구조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학생 개개인의 질문에 답을 준다면 그룹활동의 선호도 및 도움 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교수가 그룹활동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다면 문장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부실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발표만으로도 영어문장의 정확한 해석과 텍스트 내용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되어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발표에 좀 더 집중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룹활동 및 발표 활동은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비즈니스영어 수업에 다양한 수업활동을 적용한 후 학생들이 선호하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수업활동은 어떤 것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수설명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절대적으로 높았으며, 대부분 학생들은 교수설명이 텍스트 내용 이해와 영어구문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업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학생들은 교수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활동이 있는 수업보다 교수강의만 있는 수업을 더 선호하였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협력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그룹활동에 대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선호도 및 도움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대학수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다양한 수업방법, 학생과 학생간의 상호작용과 소통,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좋은 수업의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좋은 대학수업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좋은 대학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본 연구가 실시된 교과목의 성격과 조사대상자가 된 학생들의 영어능숙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가 실시된 '비즈니스 전공영어'는 특수목적영어로써 비즈니스 내용과 영어를 통합하여 교수하는 교과목으로 비즈니스 영어텍스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구조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된 학생들 대부분은 전반적인 영어능숙도가 낮아 복잡한 영어문장 구조의 경우 구조 파악과 그에 따른 정확한 의미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학생들은 영어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과 정확한 해석을 해주며 내용에 대한 설명도 따르는 교수설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교수설명이 없어도 영어구문 이해와 그에 따른 내용 파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영어능숙도가 뛰어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과 협력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룹활동의 선호도 및 도움도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모든 수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의 모형은 없는 것 같다. 교과목별로 학생들이 선호하고 많은 도움을 인식하는 수업활동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영어 교과목의 경우 학생들

의 영어능숙도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모형을 구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적인 수업방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할 필요도 없다.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도 수업에서 지식 전달은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대상자의 학습수준이 높지 않다면 복잡한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교수설명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수업활동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설명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및 예를 들어 설명하고, 질문과 설명을 혼합하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설명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수목적영어인 비즈니스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며 도움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수업활동을 조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정 대학 그리고 전반적인 영어능숙도 수준이 높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대상자 학생 수가 적다는 연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영어능숙도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거나 조사대상자가 아주 많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반적인 영어능숙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영어 읽기 수업에서 어떤 수업모형을 사용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REFERENCE

- [1] Greive, D, "Teaching strategies and techniques for adjunct facul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ED 428 804), 1998.
- [2] Dunne, D., & Brooks, K., "Teaching with cases", Halifax, Canada: Society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2004.
- [3] Cameron, B., Active learning, Halifax, Canada: Society for Teaching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1999.
- [4] McKeachie, W., "Active learning: cooperative, collaborative, and peer learning, In W. McKeachie (Ed.), McKeachie's teaching tips: strategies, research, and theory for college and university teacher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pp. 187-195, 2002.
- [5] Stein, R. F., & Hurd, S., Using student teams in the classroom, Bolton, MA: Anker Publishing Company,

- Inc., 2000.
- [6] Svinicki, M. D., Learning and motivation in the postsecondary classroom, Bolton, MA: Anker Publishing Company, Inc., 2004.
- [7] Yang, Byeong-Chang & Seo, Chang-Won, “A study on lecture satisfaction fact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21, pp. 200-215, 1994.
- [8] Park, Min-Jeong, “Students’ perceptions of good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an essay-review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Studies, Vol. 75, pp. 229-253, 2008.
- [9] Kim, T.-W., Lee, G.-M., Choi, M.-S., Eom, W.-Y., & Choi, S.-Y., “A survey on professors’ and students’ perception about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humanities and a case study of excellent teaching examples”,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7, No. 1, pp. 101-128, 2006.
- [10] Yune, So-Jung, “Analysis of good college teaching characteristics by multi-faceted approach”,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24, No. 6, pp. 963-976, 2012.
- [11] Lee, Yong-Suk, “An ethnographic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eaching at the college level”, Anthropology of Education, Vol. 4, No. 3, pp. 227-252, 2001.
- [12] Kim, Bu-Ja, “Applying problem-based learning in university business English clas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91-103, 2015.
- [13] Kim, Bu-Ja & Kim, Jun-Whai, “A study on a convergence education system to improve university students’ life competenc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173-180.
- [14] Paek, Ji-Won, “The preference and effectiveness of activities in English reading class: from university students’ perspectives”, Linguistic Research, Vol. 26, No. 2, pp. 49-66.
- [15] Lee, J.-W., & Schallert, D.,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L2 language proficiency and L1 reading ability to L2 reading performance: a test of the threshold hypothesis in an EFL context”, TESOL Quarterly, Vol. 31, No. 4, pp. 713-740, 1997.
- [16] Song, M.-J., “The role of L2 proficiency in L2 reading: the threshold model revisited, English Teaching, Vol. 56, No. 1, pp. 31-51, 2001.
- [17] Barnett, M., “Syntactic and lexical/semantic skill in foreign language reading: importance and interaction”, Modern Language Journal, Vol. 70, pp. 343-349, 1986.
- [18] Pierce, M., “Sentence-level expectancy as an aide to advanced reading”, TESOL Quarterly, Vol. 7, No. 3, pp. 269-277, 1973.
- [19] Rivers, W.,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20] Ellis, N., “Rules and instance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interactions of explicit and implicit knowledge”, European Journal of Cognitive Psychology, Vol. 5, pp. 289-318, 1993.
- [21] Fotos, S., & Ellis, R., “Communicating about grammar: a task-based approach, TESOL Quarterly, Vol. 25, No. 4, pp. 605-628, 1991.
- [22] Robinson, P.,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 fundamental similarity of implicit and explicit adult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Vol. 47, pp. 45-99, 1997.
- [23] Rosa, E., & O’Neil, M., “Explicitness, intake, and issue of awarenes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Vol. 21, pp. 511-556, 2000.

김 부 자(Kim, Bu Ja)



- 198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 199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영어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서울기독교대학교 국제경영정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영어교육, 융복합교육시스템
- E-Mail : kbj9512@scu.ac.kr